

“국민 오도하고 자살 방조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

한복의협, 24일 성명서 발표
한복의학의료인협회(대표 신명섭(사진), 이하 한복의협)는 지난 24일 국민을 오도하고 자살을 방조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사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연장선으로 인위적인 생명 단축을 존엄사로 위장한 정치적 법제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에서 말하는 ‘조력존엄사’란 정확히 표현하면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이다. 죽음을 앞당기기 원하는 말기 환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정의 절차를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처방받아 죽음을 앞당기게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제 자살을 존엄하다고 합의한 바 있다. 자살이 존엄한 것이라면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존엄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존엄사’라는 용어를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연명의료결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명의료결정이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죽을 권리는 이와는 전혀 방향

이 다르다. 인위적인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말기환자의 절망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이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그러나 정치는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살’이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존엄사, 의사조력 임종’ 등 그 어떤 용어를 써도 자살은 자살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에 대해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말기 질환이든 심한 우울증이든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의사와 함께 처방받은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해 스스로 죽

음을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자살”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호스피스완화의료’라고 한다. 이런 의료 돌봄을 통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존재론적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태부족해 암 환자의 사망 전 이용률이 33%에 그치고 있는 점”이라며 “말기 암 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 대기할 하다가 응급실에서 요양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에서 고통에 대한 완화는 제공하지 않고 치사량의 약물을 제공해 죽게 만드는 것이 존엄사인가?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로 소모하는 비용을 완화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값싼 약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어찌 ‘의사조력 임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치유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즉 살리고 돌보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돕는 사람이 아니라”며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도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종 태를 가진 임신부에게도 그러할 것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의사조력자살’이 존엄사라는 가면을 쓰고 합법화되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본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실제로 이미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는 이를 둘러싼 의료진의 부담감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

위 국가이며 그중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싫어하는 노인들과 장애인, 극빈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일반 자살도 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이 나이가 많든, 병든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엄하게 살 권리이지 죽음에 내몰릴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이 국민의 존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하고 국민을 끝까지 인간답게 돌볼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청소년 43% 불과”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 결과

기독교 청소년들의 절반은 하루 중 신앙 생활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인 학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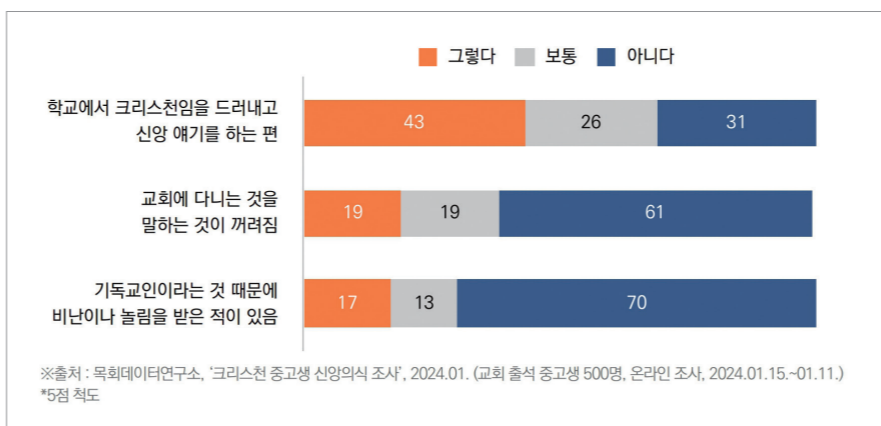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최근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23일 소개하면서 이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이 30%로 가장 많았고, ‘5분 이내’ 21%, ‘5-10분 이내’ 15% 등의 순이었다. ‘하지 않음’과 ‘5분 이내’를 합하면 51%였다. 30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은 22%였다.

또 ‘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3%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꺼려짐’ 19%,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이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음’ 17%였다.

이에 대해 목데연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에 꺼렷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학교 문화권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는 28%이하 ‘자주 그렇다’는 비율,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삶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성찰한 적이 있다’는 27%였다. 이 밖에 ‘낙심했을 때 설교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받은 적이 있다’는 21%, ‘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주중에 기억하며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노력



학교에서의 크리스천 정체성(5점 척도, 교회 출석 중고생,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다는 16%였다.

목데연은 “대체로 설교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학생 10명 중 2-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목데연은 “설교가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을 키우거나 삶의 변화에 별 영향을 못미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설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타치하고 전달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사역은 무엇보다 목회자의 헌신과 열정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지 다양한 보기를 제시하고 ‘자주 있다’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저속한 표현이나 욕설을 잡는다’ 20%, ‘더 성실하게 생활한다’ 18% 등이었다.

목데연은 “10명 중 2명 정도만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했다.

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49%였고, ‘보통’ 27%, ‘지루하다’ 24%였다. 즉 기독교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는 예배를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에는 17%가 ‘그렇다’, 6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찬양이 은혜롭지 않다’(12%)보다 ‘어려운 찬양이 은혜롭다’(70%)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

목데연은 “전반적으로 예배에서 찬양과 예배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지루하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으로 보아 설교 또는

전반적인 예배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은 ‘친구(선후배)와의 교제’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찬양’ 28%와 ‘설교’ 14%, ‘기도’ 11% 등의 순이었다. 목데연은 “설교와 기도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제, 찬양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와 친밀한 경우는 72%, 담당 교사와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반대로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은 학생은 28%, 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학생은 26%였다.

목데연은 (담당 목회자나 교사와 친밀하지 않은 비율이 대체로 10명 중 3명 가까이 되는 데) 중고등부 사역에서 아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목회자/교사 간 친밀감이 있어야 예배 참여에도 적극적인 수 있고,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담당 목회자 또는 교사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각각 그 이유를 묻은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모두 ‘궁이 친밀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담당 목회자 37%, 담당 교사 34%)로 나타났다. 한 김진영 기자

고동원 목사, 한인 최초 UCA 총회장 당선



고동원 목사(사진)가 지난 11-16일 호주 웨스턴시드니에서 열린 제17회 호주 연합교회(UCA)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전국 총회장에 당선됐다. 그의 임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다.

고동원 목사는 연세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6년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다. 1999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서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호주연합교회 남호주 주총회 선교국에서 정외과 다문화 담당을 맡고 있으며, 전국총회 다문화 교회 대변자(Advocate)와 액트2 사업감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호주 선교학회 실행위원과 호주교회협의회 생태적 태스크포스(TF)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겸손해진다. 신라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UCA를 개척하고 부흥시킬 것을 믿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기성 류승동 총회장 “교단 골든타임은...” >> 3면
- DAPCOC, 부산에서 ‘마약예방교육’ 진행 >> 5면
- 조건희 목사 “하나님과 만나야 할 이유” >> 22면

현대건설

오피스텔 165실

80m² F UNIT 평면도

펜트하우스 타입 오피스텔
● RooF
● 17F

2실 및 3실 타입 오피스텔

커뮤니티 스페이스

커뮤니티 시설
● 4F
● 3F
● 1-2F

상업시설
● 1-3F 상업시설

출퇴근 30분 시대!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개발로 지역기차상승기대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수도권 전지역 1시간내 이동 가능

지하 1층: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 2-3층: 공공 상업시설
지하 4층: 통합 대합실
지하 5층: 광역철도(GTX-A-C)
지하 6층: 유레-신사
지하 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 삼성역 GTX-A: 운정-일산-삼성-동탄-평택
- 삼성역 GTX-C: 덕정-청량리-삼성-수원-천안-안산

파주 운정-삼성역: 26분 | 일산 킨텍스-삼성역: 23분
양주 덕정-삼성역: 27분 | 수원역-삼성역: 26분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하1층 - 지하7층)

지하1층: 버스, 택시 정류장 | 지하2-3층: 공공 상업시설
지하4층: 통합 대합실 | 지하5층: 광역철도(GTX-A-C)
지하6층: 유레-신사 | 지하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유튜브에서 “생생분당톡”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1666-1691